

NEW

드디어 탄생! 미용사 인턴쉽 프로그램

호주에서 영어를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
기회. **꿈**으로 한걸음 나가주세요!



호주 한인경영 헤어살롱에서는 수시로 미용사를 모집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버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하지만 한인 살롱은 대부분 한국인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영어가 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. 그래서 현지 살롱에서 영어를 활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『미용사 인턴쉽 프로그램』이 탄생했습니다!

이런분들께 추천

1. 한국미용사 자격증을 활용하고 싶은 분
2. 해외에서 미용업계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
3. 장차 미국, 캐나다, 영국에서 취업하는데 필요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호주에 오시는 분
4. 네이티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시는 분

코스개요

입학일 : 매주 월요일
입학 조건 : 특별히 없음(초급자라도 참가가능)



칼란메서드로 스피킹과 리스닝실력을 단기에 향상시킨 후 인턴쉽준비코스에서 이력서 작성방법이나 면접연습, 미용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나 용어 등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스피킹 실력을 습득합니다.코스 수료후에는 현지 살롱에서 워크 익스피어리언스(무급)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.

모처럼의 워킹할리데이 생활! 한국 식당이나 한인 살롱에서만 일하지 말고 네이티브와 함께 현지 살롱해서 일하는 꿈을 실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?

참가 자격

▼영어실력

특별히 없음, 초급자도 참가 가능

▼자격

한국에서 미용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증명서(영문)를 발행하실 수 있는 분

▼경력

미용사로서 1년이상 커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

▼비자

워킹홀리데이비자(학생비자, 관광비자는 참가불가능)

뷰티 단기 코스 기관



Pivot Point Academy

293 Young St, Waterloo NSW 2017



Long Hair Short Course

코스 일정: 10일간(2주) 월~금(8:00~16:00)

대상자: 롱헤어 스타일링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코스.
대표적인 스타일에서 현대적인 스타일까지 배웁니다.

코스 내용:

- * 브라이덜 헤어
- * 디자인/구조
- * 현대/ 과거 롱헤어스타일에 대해
- * 패션 기술

기타:

이 코스는 **Certificate III in Hair Dressing**코스의 일부로 수료하시면 수료증(Statement of Attainment)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 나중에 **Certificate III**를 따실 경우에는 이 부분이 면제됩니다. 코스는 호주 정부 인증코스입니다.

합계: \$1,950(입학금 \$200, Unit Kit \$360, 수업료 \$1,390)

Unit Kit에 포함된 것: 교과서(디자이너의 롱헤어 다루는 법), 여성용 마네킹,
마네킹에 붙이는 롱헤어

Unit Kit에 포함안된 것(지참요): 드라이어, 블러쉬세트, 쿠션블러쉬, 테일블러쉬,
섹션닝클리프(머리고정용)

인턴쉽 비용

칼란메서드 12주(학비,
입학금,교재비포함)

+JEC Internship
Preparation course

+Hair Dressing Short
Course
(Pivot Point Academy)

+무급 인턴쉽

Aus \$5,645.00

칼란메서드 체험담



저는 미용사로 한국에서 2년전에 IELTS General 5점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 왔습니다. 운이 좋았는지 오자마자 3일만에 아는 분 소개로 현지 미용실에 취직이 되었습니다. 회화는 잘 못하는데 IELTS점수 덕분에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오자마자 너무 쉽게 소원하던 현지 업체에 취업은 되었는데 정작 문제는 손님들과 의사소통이었습니다. 스피킹은 고사하고 대부분이 남자분들인 손님들의 말을 10%정도밖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. 급기야는 꼬마 손님의 머리를 옆뒤만 잘라야 하는데 잘못 알아듣고 전부 밀어버렸지 뭐니까? (ㅠㅠ...) 일그러지는 손님들의 얼굴... 미용사가 손님들의 말을 못알아듣고 실수하다니.....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는 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군요. 미용사가 부족한 호주에서 기술이 있으니 영어만 잘하면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데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.

그 때 친구의 소개로 칼란메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. 큰맘 먹고 17주를 등록하고 남은 시간에도 학원에 남아 목이 아플정도로 배운 내용을 그저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. 당장 주 3일 일터에 가면 영어를 써야 한다는 절박감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 지금 저는 칼란메서드를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. 칼란메서드 덕을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. (ㄹ)

제 생각에는 칼란메서드는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특히 발음 교정! 그동안 한국에서 배웠던 발음이 정확한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알파벳 하나 하나, 숫자 하나 하나를 말할 때 혀가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액센트나 톤을 신경써서 유창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**발성법을 이해하니 손님들의 말을 더 잘 알아듣게 되고 제말도 잘 통하고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.** 그리고 스피킹은 3~5초동안 문법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다보면 아무 생각없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. 가령 **Tag question**같은 것을 학교에서 배우면 “~ did you?” “isn't it?” 하고 용기를 내어 손님들에게 써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표현 하나하나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.

전 **실생활에서 접목이 되어서 그런지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** 생각합니다. 미용은 서비스업이라 손님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. 단순히 원하는 머리스타일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한국에서 그랬듯 대화를 통해 손님과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. 나아가 사회에나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(정말 많지요, 직장동료나 고용주 등등) 제 입장을 당당하게 펼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제 미래의 모습을 꿈꾸면서...

현지 업체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미용사 여러분들 화이팅!

박은숙님(현재는 현지 살롱에 취업해서 영주권 신청대기중)